

# 설 연휴, 무주에서 즐기자

### 태권도원·반디랜드·마을로 가는 축제 등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의 고장 무주, 겨울이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무주'가 나흘 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가볼 만한 곳을 알리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이 추천하는 명소는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그리고 적상면 초리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룡놀이축제 등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이자 태권도 공연과 박물관 관람, 체험, 모노레일을 이용한 전람대 투어가 가능한 태권도원(문의 320-0114, 15~16일 휴관)은 17일과 18일 무료 개방한다.

머루와인동굴(문의 322-4720, 16~18일 휴관)은 무주산 머루와인의 숙성 및 저장,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인 하우스와 머루와인 비밀의 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중 13℃~17℃의 온도가 유지돼 겨울에도 인기가 높다. 와인으로 하는 족욕 체험도 가능하다.

설 당일에만 휴관을 하는 반디랜드(문의 324-1155) 곤충박물관에서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2천여 종의 희귀곤충표본과 열대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반디별 천문과학관에서는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성운, 성단을 비롯한 인공위성 관측이 가능하다. 사계절 썰매장에서는 70m를 내달리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무주읍에 위치한 최복(조선시대 화가)미술관과 김환태(일제강점기 비평문학가)문학관은 무주출신 작



적상면 초리마을에서 진행되는 공룡놀이축제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얼음썰매타기와 눈 설매, 와이어줄타기 맨손송아잡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군밤, 군고구마, 쪄디기 등 추억의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가들을 기리는 문화공간으로 2017 최북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어린이·성인 미술교실)전 관람(~2.25)과 김환태 선생이 남긴 사진과 비평 선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320-5637, 설 당일 휴관) 무주에 체류기간 2층에 자리해 있는 산골영화관(2개관 98석)에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최신 영화들을 365일 연중 2D(6천 원)와 3D(8천 원)로 상영한다. (문의 322-7053, 연휴기간 무휴) 적상면 초리마을(010-9349-3699)에서 진행되는 공룡놀이축제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 얼음썰매타기와 눈 설매, 와이어줄타기 맨손송아잡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군밤, 군고구마, 쪄디기 등 추억의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설 연휴 고향에 온 출향인들이나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무주가 자랑하는 명소에서 즐겁고 재밌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여행 관련 문의는 1899-8887로 하면 되며 15일에는 무주시외버스터미널 앞과 무주 IC 남남의 광장, 향교, 반디랜드, 태권도원 안내소, 16일에는 무주시외버스터미널 앞과 무주 IC 남남의 광장, 향교 안내소를 이용(10:00~17:00)할 수 있다. 17~18일에는 모든 안내소가 정상 운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 될 것”

###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설맞이 떡국나눔 행사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지회장 이상수)는 13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서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떡국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수군새마을부녀회 회장 김후남 회장과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등 30명은 정성껏 마련한 떡국과 과일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가 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상수 지회장은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없이 큰 희망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수 지회장은 지난 12일 2018년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정기총회 개최를 통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 진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호응'

진안군은 13일 소상공인 특례보증제 시행 1개월 만에 7개 업체에서 1억6500만원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과 함께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란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억 이하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로서 상환기간은 최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용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진안군에서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한다.

군은 특례보증제 신청 문의가 증가 추세인 만큼 급년도 목표액인 12억원 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세요

### 진안군, 50세 이상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지난 12일부터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하여 9만원에 접종을 실시하며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그동안 비싼 접종비용으로 접종을 망설였던 군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포진은 신경후군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일어나고 발진과 수포는 등신경뿌리 신경절이 분포하는 편측에 국한적으로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

게 나타난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포진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백신의 예방률은 5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은 스카이조스터(SK케미칼)와 조스타박스(MSD)로 진안군은 스카이조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진안군보건소는 이밖에 만 65세 이상 사망원인의 4순위를 차지하는 폐렴구균(23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접종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63-430-8551~2)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해빙기 전후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달 30일까지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진단 대상은 관내 5개(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128개소, 민가와 인접한 임도시설 3개소선 및 산발시설 10개소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의 총 7개분야, 148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밀한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유관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 위험요소 발견 즉시 현장 응급조치 및 보수와 보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홍삼축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앞장

### 군, 홍삼 꽃등 만들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21일까지 6명 모집... 3월~6월 30일까지 추진

진안군은 13일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18 진안홍삼축제에 사용할 꽃등을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분야다.

군은 진안의 대표특산물인 홍삼을 가지고 지난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마이산명인명품관의 한지명인들의 지도하에 홍삼축제에 사용할 홍삼 꽃등을 만들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며 군은 참여자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근무여건은 1일 6시간 근무로 주4일(화~금)근무할 계획이며, 참여자에게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과

간식·교통비 일 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축제팀(063-430-2391)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무주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19년에 추진하는 국비사업은 총 43건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40억 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황정수 군수는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발광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미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에 무주군이 추진하려는 국비사업은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196억 원)을 비롯해 △칠연폭포 관광자원화(90억 원), △태권도관광호텔공원 조성(35억 원), △태권도거리 조성(10억 원),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40억 원), △친환경 국산 목재 가공센터 조성(70억 원), △

공촌사육기반 조성(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67억 원) 및 하수도 정비(49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55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20억 원), △무주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1억 8천만 원) 등으로, 무주군은 '반딧불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태권도 성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창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중 미래비전 담당은 "사업별로 세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처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딛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열려

장수군은 13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올해 첫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1회 추경예산 편성심의안, 지방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안 등 총 4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 도입 4년째를 맞이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공무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장수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